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내게 말씀하신 곳
나의 맘 받으소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8:26-40

“있으니”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 39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일 현장예배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은 참석하기를 도전합니다.
3.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4.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5. 11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 목녀들은 기억하시고 Zoom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격주로 예배오는 분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봉투를 2주간 배부합니다.
7. 금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전액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8.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12월 첫주일부터 1부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116,405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오늘날 믿는 자들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도 ‘교인, 제자, 기독교인,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이런 호칭들이 아닙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개독교 혹은 개독교인”입니다. 기사를 비하해서 기자와 쓰레기를 결합한 말인 ‘기레기’라고 하듯이, ‘개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폄하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1세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이 호칭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예전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게 부르던 ‘예수쟁이’란 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결코 존경스런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란 의미에서 시작해서 후에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은 “작은 예수”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가르친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또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스스로도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한울림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년에도 이 표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한울림교회 성도를 보면 “제자”라는 말과 이 표어가 사람들에게 떠오르기를 기대합니다.